



해외연기금, 실물자산 증가

1. 미국 순매도, 영국/룩셈부르크 증립

- 1월부터 4월까지의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의 비중이 높은 영국과 룩셈부르크가 외국인 순매도 이끌었음.
- 5월에는 영국과 룩셈부르크의 순매도 규모는 크게 줄어들고, 뮤추얼 펀드 비중이 높은 미국이 1.1조원의 국내주식 순매도.
- 5월에는 스위스, 노르웨이(국부펀드), 호주(연금) 등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매수.

뮤추얼펀드의 영향력이 큰 미국계 자금은 5월 1.1조원 국내주식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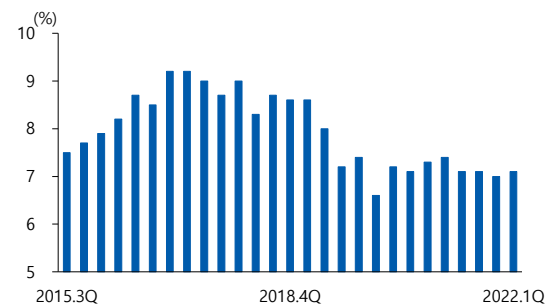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해외 연기금, 실물자산 비중 증가

- 미국의 CalPERS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자산배분안에 맞추기 위하여 2020년초부터 공모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음
- CalPERS의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1분기 실물자산 비중은 2% 증가.
- 네덜란드의 ABP는 실물자산 비중을 늘리고, 신흥국주식 비중은 7% 내외로 유지.

네덜란드 ABP는 선진국 주식 비중은 줄이고, 신흥국 주식 비중은 유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미국 순매도, 영국/룩셈부르크 증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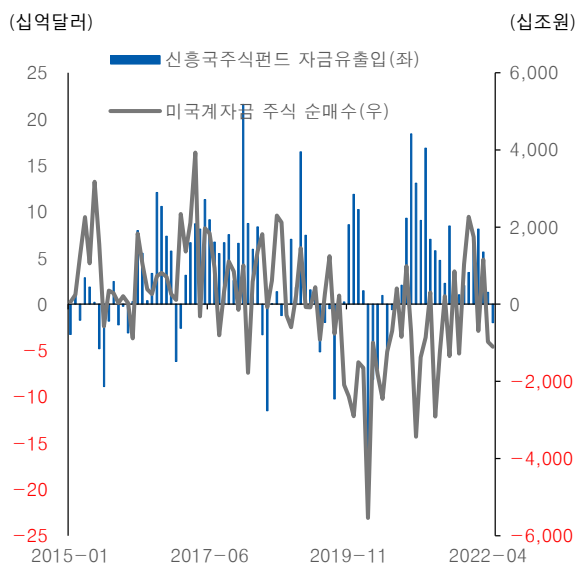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5월에만 외국인은 1조 6140억원의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은 1조 3700억원 순투자하였다.

1월부터 4월까지의 주로는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 등의 비중이 높은 영국과 룩셈부르크가 국내주식 순매도를 이끌었다. 반면 뮤추얼펀드 등의 비중이 높은 미국은 1월부터 4월까지의 순유입을 이어갔으나, 5월 순유출로 돌아섰다.

일반적으로 미국계 자금은 장기 투자 성격의 뮤추얼펀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흥국 주식펀드,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수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미국계 자금은 순매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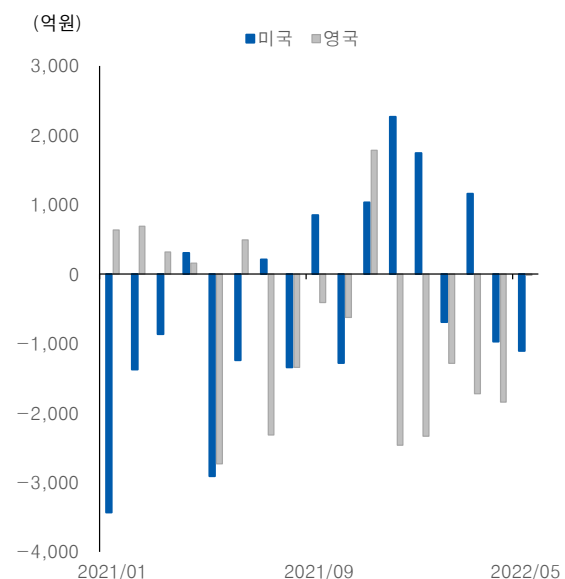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순매도를 이어왔던 영국은 5월 150억원으로 순매도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룩셈부르크도 5월 순매도 규모가 2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5월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등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매수하였다.

[차트1] 신흥국 주식펀드에서 자금 빠져나가면서, 미국계 자금 순유출로 돌아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연초 이후 외국인 순매도를 이끌었던 영국계 자금의 순매도는 5월 크게 감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해외 연기금, 실물자산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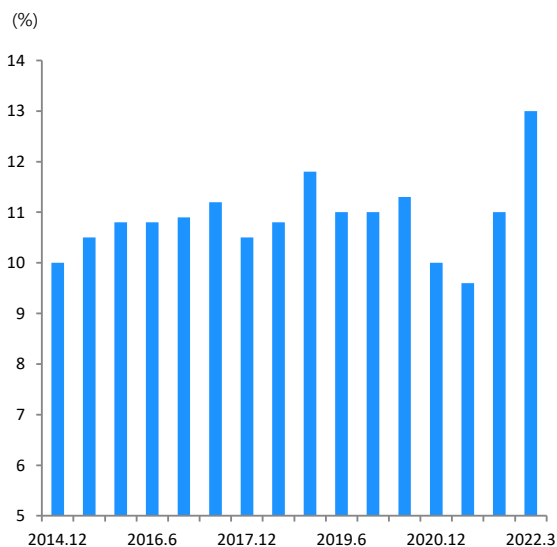
해외 주요 연기금은 2021년부터 주식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 주식의 비중을 줄여왔으며, 연초 이후 선진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주식 자산의 비중 축소가 가속화되었다.

미국의 CalPERS는 전략적으로 올해 7월부터 공모주식의 목표비중을 50%에서 42%로, Private Equity 비중을 8%에서 13%로 늘리는 결정을 하였다. 이를 위해 CalPERS는 2019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공모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 CalPERS의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비중은 11%에서 13%로 늘어났다.

네덜란드의 ABP는 1분기에 주식 비중이 1.2% 줄어들었다. 그 중에서 선진국 주식은 1.4% 줄어들었고, 신흥국 주식은 0.1% 증가하였다. 선진국 주식 비중 축소는 선진국 주식시장의 약세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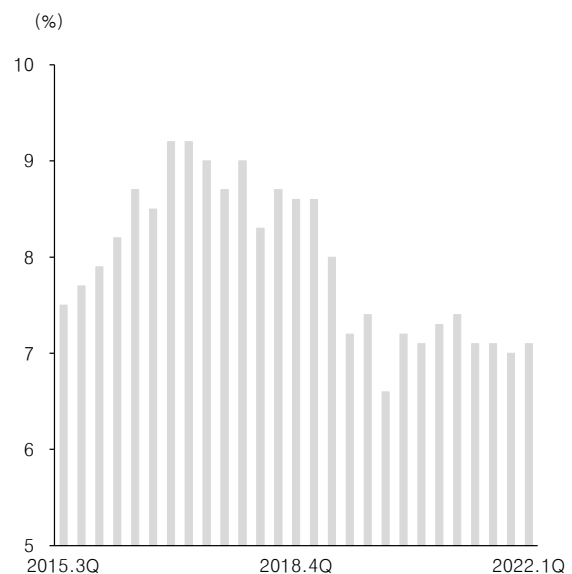
ABP는 2019년 신흥국 주식 비중을 크게 조정한 이후 신흥국 주식 비중은 7%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1분기에는 부동산과 Private Equity 비중이 각각 0.6%와 0.5% 늘어나면서, 대체 자산 비중이 2% 늘어났다.

[차트3] 미국 CalPERS의 Real Asset 비중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네덜란드 ABP는 선진국 주식 비중은 줄이고, 신흥국 주식 비중은 유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